

# 신문기사와 트위터에 나타난 언론과 대중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황수진(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박혜랑(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논문초록

최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기독교 인구는 감소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독교는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재 언론과 대중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에 관심을 가져 사회와의 교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와 트위터 댓글을 '기독교' 키워드로 크롤링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감성분석을 기반으로 한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대중과 언론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추락 원인으로 기독교 내부의 문제를 주로 지적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 언론과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배타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주제어: 기독교, 사회인식, 대중인식, 배타성

## I. 서론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원인은 교회의 부조리함과 부정이었으며, 면죄부 판매는 교회의 부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독일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사건으로 발전되었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의 원천은 기독교를 가진 성직자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중과 일반교인들이 연대에 있었다. 종교개혁으로 자성의 시도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약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수백 년간 일반대중과 교인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데에는 성직자 개인의 일탈 문제와 기독교 종단과 종파들 간의 대립과 갈등, 보수적인 기독교 교리와 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한국 기독교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에 발맞추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세계에서 큰 대형교회 50개 중 절반을 차지하는 부흥을 이루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성장한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극단적으로 반기독교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은 크게 동성애반대, 타종교의 불인정, 기독교의 정치참여, 이단 문제와 같이 기독교의 보수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거시적인 관점과 성직자의 법적·도덕적 일탈행위, 교회의 대형화, 교회 세습 등과 같은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갤럽이 2014년에 실시한 종교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종교인 742명에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를 조사한 결과 불교(25%), 천주교(18%), 개신교(10%) 순이었다. 2014년 한국인의 종교분포가 불교인 22%, 개신교인 21%, 천주교인 7% 임을 감안한다면 비종교인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교단체는 종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긍정률은 63%이었는데 응답자의 종교별로는 비종교인(71%), 불교인(62%), 천주교인(54%), 개신교인(52%) 순으로 개신교인의 긍정률보다 비종교인의 긍정률이 높아 이들간의 인식차이가 큰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재 한국인의 68%는 “종교단체가 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고 인식하며, 비종교인뿐 아니라 종교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종교단체 역할에 부정적이었다. 종교단체에 대한 자유응답식 인식조사에서 개신교에 대해서는 “지나친 전도활동”이 9%로 가장 많았으며, “헌납금 부담/강요”가 6%, “타종교 비방” 4%, “지나친 교세확장/권력남용”의 4% 순이었다(한국갤럽, 2015:30-31,98; 윤승용, 2015: 211-214).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기독교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기독교는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대중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에 관심을 가져 사회와의 교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및 주요 신문사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언론보도를 ‘기독교’ 키워드로 크롤링(Crawling)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기반으로 한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대중과 언론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 기독교의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위터 텍스트 및 주요 신문사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기독교에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 1.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은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으로 불리며,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한 사람들의 의견, 감성, 태도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기업들은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는데, 이를 위하여 과거에는 설문지배포 및 전화설문 등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 분석이 대두되면서 트위터를 대표로하는 소셜미디어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견 분석은 다양한 측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한 감성분석 기법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가 긍정, 부정, 혹은 중립 중 어느 위치에 속해있는지 판별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분석은 각 텍스트의 최소단위인 형태소의 감성 극성(Sentiment Polarity)을 바탕으로 감성사전(Sentiment Lexicon)을 설계한 후, 감성사전에 따라 텍스트의 감성을 분류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인터넷 뉴스 댓글의 감성분석은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조하나 외, 2013:150).

감성사전이란 감성어(Sentiment word) 또는 감성어구(Sentiment Phrase)의 감성값을 정의해 둔 것을 말하며, 명확한 감성을 갖는 기본어휘에 값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어휘의 감성 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감성사전 설계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사전기반 접근법과 말뭉치 기반 접근법으로 구분된다(김승우·김남규, 2014: 136).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의 근간이 되는 감성사전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안신호 외(1993: 115-117)의 국어사전을 기초로 한 213개의 감정단어 목록 연구와 한덕웅·강혜자(2000: 72-76)의 일상생활 및 국어대사전에서 추출한 834개의 감정단어 목록 연구, 박인조·민경환(2005: 121-122)이 선별한 434개의 감성단어 목록 연구 등이 있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트위터(twitter)로부터 오픈 API를 기반으로 키워드 ‘기독교’가 언급된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일 단위로 수집되었으며 각 연도별 평균 약 60,000개의 사례 수를 확보하였다.

또한 언론보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어 ‘기독교’로 검색되는 기사들을 파이썬(python)을 이용하여 크롤링(Crawling)기법으로 수집하였다.

네이버 뉴스에서 기사를 수집한 이유는 네이버가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 사이트이고, 국내 대다수의 언론사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롤링은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에서 각 기사의 제목과 URL과 날짜를 수집 한 후, 각 기사의 URL로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서 본문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사의 수집 단계에서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라 할지라도 검색어인 ‘기독교’를 포함하는 기사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 수집되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온라인 뉴스와 소셜미디어 등에 표현된 기사와 댓글 등의 텍스트 속 의미와 감정을 분석한다. 형태소 분석과 같은 자연어 처리를 통한 감성 단어들의 분류를 위해 통계패키지 SAS v.9.2를 활용하였다.

감성사전은 박인조·민경환(2005: 109-129) 연구의 결과로 선별된 434개의 감성단어들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감정현상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이 감정단어를 선별하였고, 오관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비감정단어들을 선별하여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감정으로 혼동될 수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기 위해 ‘신체감각’, ‘성격’, ‘감정상태’, ‘행동’, ‘동기’, ‘관계’, ‘구로 표현될 경우 감정단어로 보이는 것’, ‘기타’의 8가지 범주로 구별하여 목록을 구성하였다(박인조·민경환, 2005: 109-129). 감정단어 목록의 예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한국어 감정 단어들의 예시

단어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경탄하다	3.76	3.16	3.99	5.35
고깝다	3.08	3.02	2.42	4.18
고쳐하다	3.54	4.08	2.71	3.72
고독하다	4.57	5.18	2.38	2.47

출처: 박인조·민경환(2005: 부록).

원형성이란 단어가 감정단어로서 얼마나 적당한지 7점 척도로 평정한 것이며, 친숙성이란 단어가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한 것이다. 또한 활성화는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는 지수로써 7점 척도로 평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쾌-불쾌지수는 “목표한 것을 성취했을 경우 매우 쾌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매우 불쾌합니다.”와 같이 경험에 대한 상황적 예를 설명하고, 단어가 그러한 정도를 얼마나 함축하는지 7점 척도에서 평정한 것이다. 이 결과를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중립의 의미를 제외하고 단어들을 쾌-불쾌를 기준으로 1-3.99까지는 부정, 4-6.99까지는 긍정으로 분류하였다.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분류에서 의미가 중복되어 해석될 수 있는 부정어인 ‘화’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III. 연구결과

다음 <표2>에는 최근 3년간의 인터넷 기사 중에서 각 연도별 기독교관련 기사수와 이의 연도별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기독교관련 기사수는 총 100,339건이었는데 이중 2013년에는 22,350건, 2014년에는 46,789건, 2015년에는 31,200건으로 2014년(46.63%)에 기독교관련 기사수가 특별히 많았다.

<표2> 연도별 기독교관련 기사수

연도	기사수	백분율
2013	22,350	22.27
2014	46,789	46.63
2015	31,200	31.09
총	100,339	100.00

최근 3년간 기독교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는 총 437개였는데 다음 <표3>에는 3년간 천 건 이상의 기독교관련 기사를 게재한 19개 언론사의 언론사별 기사수와 전체 기독교 관련 기사 100,339 건 중에서 각 언론사 기사수의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언론사별 기사수는 국민일보와 크리스천투데이가 각각 11,643건과 9,4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연합뉴스(4,991건), 한국기독교공보(3,720건), 뉴스1(3,448건), 뉴시스(3,306건)의 순이었다. 기독교 관련 인터넷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한 10개 언론사 중에서 국민일보(1위), 크리스천투데이(2위), 한국기독교공보(4위), 천지일보(8위), 세계일보(10위) 등 5개 언론사는 종교계 언론사였다.

<표3> 언론사별 기독교 관련 기사수

언론사	기사수	백분율
국민일보	11,643	11.60
크리스천투데이	9,419	9.39
연합뉴스	4,991	4.97
한국기독교공보	3,720	3.71
뉴스1	3,448	3.44
뉴스스	3,306	3.29
노컷뉴스	2,773	2.76
천지일보	2,079	2.07
한겨레	1,656	1.65
세계일보	1,616	1.61
미주중앙일보	1,538	1.53
경향신문	1,524	1.52
한국일보	1,413	1.41
서울신문	1,284	1.28
동아일보	1,251	1.25
오마이뉴스	1,149	1.15
YTN	1,142	1.14
매일경제	1,073	1.07
아시아경제	1,067	1.06

최근 3년간의 기독교관련 기사 100,339건에 사용된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는 각각 135개와 357개였으며, 긍정단어는 7,258건(7.23%), 부정단어는 6,602건(6.58%)의 기사에 사용되었다. 다음 <표4>와 <표5>에는 각각 30회 이상씩 사용된 긍정과 부정 단어들이 사용빈도 순으로 제시되었다. 30회 이상 사용된 긍정단어는 26개, 부정단어는 42개였으며, 형용사나 부사의 경우에는 공통의 어근을 가지고 어미가 다른 단어들은 모두 동일 어근별로 계수하였다.

<표4> 기독교 관련 기사내 긍정단어별 사용빈도

단어	사용 기사수	백분율
사랑	1,952	1.95
평화	1,887	1.88
좋	735	0.73
행복	520	0.52
감동	143	0.14
연정	141	0.14
열정	111	0.11
우수	109	0.11
영광	89	0.09
열애	87	0.09
공감	86	0.09
사모	84	0.08
안정	66	0.07
온정	66	0.07
만족	54	0.05
즐거	53	0.05
몽클	51	0.05
편환	50	0.05
놀라	39	0.04
기쁜	36	0.04
즐거	36	0.04
보람	32	0.03
성취	32	0.03
애정	31	0.03
동경	30	0.03
자랑스러	30	0.03

<표5> 기독교 관련 기사내 부정단어별 사용빈도

단어	사용 기사수	백분율
의혹	482	0.48
갈등	450	0.45
우려	354	0.35
뺨	341	0.34
긴장	300	0.30
애도	256	0.26
싫	238	0.24
정한	217	0.22
회개	188	0.19
분노	186	0.19
원한	161	0.16
동정	153	0.15
무료	144	0.14
협오	140	0.14
공포	123	0.12
통한	118	0.12
고민	104	0.10
불편	80	0.08
불안	79	0.08
부끄	77	0.08
아리	73	0.07
의심	69	0.07
유감	65	0.06
안타까	64	0.06
증오	63	0.06
걱정	59	0.06
미안	56	0.06
억울	53	0.05
황당	48	0.05
죄송	46	0.05
발끈	43	0.04
아연	43	0.04
침통	42	0.04
외로	41	0.04
상실	37	0.04
여한	35	0.03
절망	35	0.03
슬픈	33	0.03
좌절	33	0.03
불만	32	0.03
우울	31	0.03
경악	30	0.03



다음 <표6>에는 언론사별 기독교관련 기사수와 긍정과 부정단어사용 기사수 및 각 언론사별 기사수 중 긍정과 부정단어 기사의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긍정단어를 사용한 기사수의 순위는 국민일보(1,176건), 크리스천투데이(669건), 연합뉴스(337건), 천지일보(246건), 한국기독교공보(244건), 세계일보(166건) 등으로 종교계 언론사의 순위가 높았으며, 언론사별 전체 기사수 중에서 긍정단어 사용 기사수의 비중도 천지일보(11.83%), 국민일보(10.10%), 세계일보(9.96%), 서울신문(7.48%), 크리스천투데이(7.10%), 미주중앙일보(6.69%), 한국기독교공보(6.56%)의 순으로 종교계 언론사의 순위가 높았다,

부정단어를 사용한 기사수의 순위는 국민일보(716건), 크리스천투데이(541건), 연합뉴스(312건), 뉴스1(219건), 노컷뉴스(191건), 유시스(169건)의 순이었다. 한편 부정단어 사용 기사수의 비중은 오마이뉴스(9.57%), 서울신문(8.57%), YTN(7.88%), 세계일보(7.36%), 천지일보(7.02%)의 순으로 기독교에서 이 단어로 분류되는 통일교와 신천지 발간 세계일보와 천지일보의 부정단어 사용 기사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긍정이나 부정 단어 사용 기사수의 순위는 대체로 기독교관련 기사수가 많은 순위와 일치하였다.

<표6> 언론사별 기독교 관련 기사수

언론사	기사수	긍정단어 사용기사		부정단어 사용기사	
		기사수	백분율	기사수	백분율
국민일보	11,643	1,176	10.10	716	6.15
크리스천투데이	9,419	669	7.10	541	5.74
연합뉴스	4,991	337	6.75	312	6.25
한국기독교공보	3,720	244	6.56	158	4.25
뉴스1	3,448	132	3.83	219	6.35
유시스	3,306	159	4.81	169	5.11
노컷뉴스	2,773	199	7.18	191	6.89
천지일보	2,079	246	11.83	146	7.02
한겨레	1,656	120	7.25	97	5.86
세계일보	1,616	161	9.96	119	7.36
미주중앙일보	1,538	107	6.96	90	5.85
경향신문	1,524	75	4.92	127	8.33
한국일보	1,413	62	4.39	71	5.02
서울신문	1,284	96	7.48	110	8.57
동아일보	1,251	75	6.00	87	6.95
오마이뉴스	1,149	66	5.74	110	9.57
YTN	1,142	44	3.85	90	7.88
매일경제	1,073	67	6.24	65	6.06
아시아경제	1,067	54	5.06	71	6.65

다음 <표7>에는 기독교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날짜순으로 각각 총 기사수와 긍정단어, 부정단어 사용 기사수, 그리고 해당 날짜 기사 중에서 긍정단어와 부정단어 사용 기사수의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기사수가 가장 많았던 날짜는 2014년 5월 21일(853건), 2014년 6월 11일(724건), 2014년 5월 23일(682건)의 순이었으며, 긍정단어 사용 기사수가 많았던 날짜는 2014년 10월 27일(47건),

2014년 5월 14일(37건), 2014년 7월 24일(35건), 부정단어 사용 기사수가 많았던 날짜는 2014년 5월 16일과 2013년 2월 12일(각각 85건), 2014년 7월 24일(82건)로 긍정과 부정단어를 사용한 기사수가 많은 날짜가 기사수가 많은 날짜와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일 기사 중에서 긍정기사의 비중이 높았던 날짜는 2014년 10월 27일(12.57%), 2014년 8월 11일(11.83%), 2014년 5월 14일(10.22%), 부정기사의 비중이 높았던 날짜는 2013년 2월 12일(20.33%), 2014년 7월 26일(16.31%), 2014년 7월 24일(15.92%)의 순이었다.

<표7> 날짜별 기독교 관련 기사 수와 긍정적, 부정적 단어사용 기사수

날짜	기사 수	긍정단어 사용		부정단어 사용		사건
		기사 수	비율	기사 수	비율	
14.05.21	853	10	1.17	46	5.39	세월호/구원파/금수원 배치, 진입, 압수 수색
14.06.11	724	7	0.97	33	4.56	금수원(경,검찰,진입/압수수색), 유병언(도피 도운 인물 체포나서)/문창극 망언
14.05.23	682	18	2.64	73	10.70	한기총 조광작 목사 망언/유병언
14.06.12	659	6	0.91	30	4.55	금수원(수색/수색 중 낮잠 잔 검찰), 문창극망언
14.05.15	622	6	0.96	49	7.88	구원파 공식성명/유병언(어디에 있나, 신협 사금고 노릇)
14.05.16	604	6	0.99	85	14.07	유병언(검찰소환불응)/금수원(신도집결)/구원파 기자회견(우리 아닌 해결책임)
14.05.26	557	21	3.77	18	3.23	유병언(현상금, 도피)
14.04.23	541	13	2.40	33	6.10	유병언일가/구원파/정해진해운 직원 대다수 구원파
14.05.18	524	7	1.34	15	2.86	금수원(구원파, 내부 공개)/유병언(소재 오리부중, 무대응)
14.07.24	515	35	6.80	82	15.92	연예인 유채영 사망(기독교식 장례 진행)/유병언 미스터리
14.02.17	505	19	3.76	25	4.95	이태란 기독교식 결혼/성지순례 폭탄테러
14.05.02	477	14	2.94	33	6.92	구원파 연예인 전양자/유병언
14.05.20	464	3	0.65	34	7.33	유병언(금수원 빠져나가, 신도집 은신 가능성, 영장심사 불출석)
14.04.24	461	7	1.52	72	15.62	유병언일가 비리/구원파
13.02.12	418	33	7.89	85	20.33	울랄라세션 임운택 사망
14.06.13	399	4	1.00	23	5.76	문창극/유병언(친형 체포, 신임마 자수권고)
14.07.22	387	22	5.68	26	6.72	유병언 사망 추측
14.07.28	378	24	6.35	20	5.29	김엄마 자수
14.05.13	376	14	3.72	35	9.31	금수원 막아선 구원파 신도

14.10.27	374	47	12.57	11	2.94	김경란이나-김상민의원 기독교식 결혼
14.05.22	367	8	2.18	20	5.45	유병언 부자 현상금 공개수배
14.05.14	362	37	10.22	42	11.60	금수원(어떤 곳, 은신처, 신도)/유병언(어디 있는가, 장남 잠적, 출석통보)/pd수첩 사랑 의교회(22/362)/납치된 나이지리아소녀
14.05.27	350	12	3.43	7	2.00	유병언(도피, 장녀 체포)
15.11.26	348	15	4.31	30	8.62	YS 영결식
14.05.19	340	15	4.41	28	8.24	유병언(소재과약 주력, 영장심시 하루 앞)/금수원(경계삼엄)/구원과
14.05.28	315	10	3.17	13	4.13	유병언 일가 재산동결
14.04.25	314	11	3.50	36	11.46	유병언 일가 재산/본거지(금수원)/계열사 '다판다'
14.07.29	284	14	4.93	13	4.58	유병언 운전기사(양회정) 자수/김엄마 자수
14.08.08	284	12	4.23	6	2.11	오바마,이라크 ISIS공습 승인
14.10.21	283	27	9.54	19	6.71	이유리(전도사남편과 러브스토리)
14.07.26	282	9	3.19	46	16.31	유대균과 신엄마딸 박수경 검거/유채영 발인
14.08.11	279	33	11.83	19	6.81	김엄마 친적집서 현금 발견/박성신 사망
14.07.25	271	12	4.43	32	11.81	유대균과 신엄마 딸 박수경 체포/유채영 빈소
14.06.16	269	27	10.04	5	1.86	문창극 후보자 발언/유병언 측근 신엄마 체포/한중기독교교류 세미나 개최
14.09.01	262	18	6.87	11	4.20	유병언 장례식/유병언 가방 추가발견/이건호 국민은행장 거취 관련
14.06.15	261	11	4.21	22	8.43	문창극 후보자 발언/유병언 측근 재판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 개최
14.05.06	257	11	4.28	14	5.45	구원과 신도들 종교탄압 중단 촉구 시위
14.05.12	256	15	5.86	13	5.08	유병언 일가 수사/종교지도자들 세월호 추모/나이지리아 피랍 여학생 영상 첫공개
14.05.25	255	9	3.53	12	4.71	유병언 수사 장기화(구원과 유병언지키기, 유병언 현상금)/교황 중동방문 시작
14.05.01	253	3	1.19	23	9.09	세월호참사, 세월호 수사지휘 해경 정보국이 구원과 장학생으로 구원과 신도의혹으로 경질, 유병언 비자금 행방
15.04.14	253	14	5.53	3	1.19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시사회, 세월호
15.02.16	252	18	7.14	19	7.54	IS 콧트교 2명 참수 영상 공개
15.11.25	251	10	3.98	22	8.76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영결식)
14.05.08	246	13	5.28	31	12.60	유진 구원과 연루설, 유병언 그룹 수사시작(구원과 총본산 안성 금수원 항공영상으로

						내부 공개)
14.07.23	244	12	4.92	19	7.79	유병언 시신발견(유병언 마지막 행적)/무능 공권력,
14.08.18	243	23	9.47	7	2.88	프란치스코 교황 명동성당 미사 및 종교간 대화합 역설
14.06.09	242	16	6.61	23	9.50	구원과 기자회견(유병언 밀항시도)
14.05.09	239	4	1.67	30	12.55	유진 구원과 루머 해명/유병언 측근 전양 자씨 내일 소환/유병언 계열사 수사
14.09.05	232	15	6.47	28	12.07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미국서 체포/레이디 스코드 참사
14.11.19	231	13	5.63	40	17.32	고 김자옥 발인
14.05.17	229	0	0.00	28	12.23	그것이 알고 싶다(유병언 일가 비밀 취재)/금수원에 구원과 신도들 집결 및 강경농성
15.09.15	228	10	4.39	15	6.58	샤를리에브도(난민꼬마조롱)/헝가리 난민입국 전면차단(국가비상사태 선포)
14.06.02	225	9	4.00	11	4.89	유병언 도주/박대통령 세월호참사 기도회 참석
13.12.16	224	29	12.95	7	3.13	기독교 시국기도회 및 시국선언(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5.02.13	220	4	1.82	29	13.18	언론단체 이완구 검찰고발/13일의 금요일' 불길한날
15.04.05	220	12	5.45	5	2.27	부활절 행사, 세월호 추모
14.05.10	215	3	1.40	21	9.77	전양자 검찰출석/세월호 촛불 집회, 유진 해명/구원과 집회/유병언 일가 탈세정황
14.04.22	212	11	5.19	7	3.30	세월호 실종자 기도회/정해진해운 유병언 수사시작/서세원 교회 운영중단
14.05.29	212	2	0.94	13	6.13	유병언 일가 재산 2천 400억 동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사라진 유병언(검찰 추적),
13.09.23	210	27	12.86	2	0.95	독일 총선 여당 철의 여인 메르켈 앞승(메르켈 연임)
14.06.19	207	6	2.90	10	4.83	문창극 발인 관련 논란/유대균 놀이동산 압수수색/유병언 도피 핵심 조력자 체포
15.11.23	205	24	11.71	29	14.15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입관식 관련)
14.12.25	203	40	19.70	20	9.85	성탄행사
15.06.01	203	12	5.91	12	5.91	유병언 도피
14.04.20	202	5	2.48	20	9.90	부활절 연합예배 세월호 추모
14.10.26	202	19	9.41	1	0.50	김경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결혼
15.04.06	202	15	7.43	13	6.44	전세계 부활절 행사, 세월호 추모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다루어진 기독교관련 기사는 구원과와 연계된 세월호 사건이었으며, 다음으로

는 문창극 총리후보지명자, 연예인의 결혼, 교황, 부활절, 성탄절, 국제난민, 유명인의 장례, 시국선언, 퀴어축제 등이었다. 다음 <표8>에는 기독교 관련 기사들의 주제어별로 긍정과 부정 단어와 함께 사용된 기사수와 이의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기독교관련 기사의 주요 주제어 7개 중에서 긍정단어의 빈도가 부정단어보다 많았던 기사는 교황, 부활절, 성탄절 등 교회관련 기사, 그리고 결혼과 장례관련 기사였으며, 정치기사 중에는 시국선언 관련기사가 유일하게 긍정단어의 사용빈도가 많았다. 한편, 세월호사건, 문창극, 국제난민 등의 정치관련 기사, 퀴어축제, 콧교, 성지순례, 인도사원 땅밟기 등 타종교나 타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를 다룬 기사들은 모두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빈도가 크게 높았다.

<표8> 사건별 기독교 관련 기사 수와 긍정적, 부정적 단어사용 기사

분야	사건		총기사수	긍정단어		부정단어	
				기사수	백분율	기사수	백분율
정치	세월호	유병언	5,985	39	0.65	387	6.47
		세월호	3,432	41	1.19	242	7.05
		구원파	3,259	27	0.83	236	7.24
	문창극		768	21	2.73	45	5.86
	난민		653	31	4.75	61	9.34
	시국(시국선언/시국기도회)		264	15	5.68	9	3.41
종교	교황		1,195	135	11.30	63	5.27
	성탄절		925	126	13.62	44	4.76
	부활절		950	49	5.16	49	5.16
사회	퀴어축제		227	5	2.20	33	14.54
	콧교		169	4	2.37	12	7.10
	성지순례		143	5	3.50	17	11.89
	인도사원 땅밟기		21	1	4.76	6	28.57
문화	결혼		1,771	187	10.56	96	5.42
	장례		433	13	3.00	8	1.85

다음 <표9>에는 <표8>에 제시된 최근 3년간 많이 다루어진 기독교관련 기사를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네 개 분야로 통합한 분야별 총기사수와 긍정단어, 부정단어 사용 기사수가 제시되었다. 네 개 분야별 긍정단어와 부정단어 사용빈도에 대한  $\chi^2$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이들 네 개 분야의 긍정단어와 부정단어 사용빈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531.8860$ ,  $p<0.0001$ ). 이 표에 의하면 종교와 문화분야 기사에는 긍정단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치와 타문화 타종교 등을 다룬 사회분야 기사에는 부정단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9> 분야별 기독교 관련 기사 수와 긍정적, 부정적 단어사용 기사

분야	총기사수	긍정단어		부정단어	
		기사수	백분율	기사수	백분율
정치	14,361	174	1.21	980	6.82
종교	3,070	310	10.10	156	5.08
사회	560	15	2.68	68	12.14
문화	2,204	200	9.07	104	4.72

다음 <표10>에는 키워드를 '기독교'로 하여 검색한 최근 3년간의 트위터 댓글과 이의 연도별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기독교관련 트위터 댓글은 총 174,886건이었는데 이 중 2013년에는 60,438건, 2014년에는 61,500건, 2015년에는 52,948건으로 인터넷 기사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중 2014년(35.17%)에 기독교와 관련된 트위터 댓글의 수가 가장 많았으나 기사보다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10> 연도별 기독교관련 트위터 댓글 수

연도	트위터 댓글 수	백분율
2013	60,438	34.56
2014	61,500	35.17
2015	52,948	30.27
총	174,886	100.01

기독교와 관련한 트위터 댓글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많이 달리는지 확인하기 알아보기 위하여 트윗 수가 가장 많았던 날짜와 사건이 다음 <표11>에 정리되었다

<표11> 날짜별 기독교 관련 기사 수와 긍정적, 부정적 단어사용 트윗 수

날짜	트윗수	트윗에 언급된 주요사건
14.06.12	768	문창극 총리후보 망언
14.06.15	666	문창극 총리후보 망언
14.06.13	639	문창극 총리후보 망언
14.06.16	595	문창극 총리후보 망언
13.12.16	567	박근혜퇴진 거리행진 및 시국기도회
15.06.28	525	리퍼트대사 퀴어축제 방문
13.04.18	521	차별금지법 개정 철회
14.06.14	495	문창극 총리후보 망언
13.06.21	492	국정원규탄 시국선언
13.11.26	443	교회 세금 헌법위배 성명
13.04.08	405	차별금지법 반대
15.06.27	405	퀴어축제/동성애
15.06.26	403	퀴어축제/동성애

14.08.15	395	교황방한
13.10.25	360	박정희 추모예배
14.01.20	351	신천지 vs 전기연(전주기독교연합회) 조용기목사 징역 5년 구형
14.01.17	345	신천지 vs 전기연(전주기독교연합회)
14.08.14	340	교황방한
15.05.07	331	신천지와 한기총/퀴어축제 반대
15.05.06	306	신천지와 한기총/퀴어축제 반대
14.06.23	296	문창극 총리후보 망언
14.07.09	296	인도사원 땅밟기
13.09.23	290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 유명익 내정 및 천주교 시국미사
13.12.03	287	게임중독법 추진 성명
14.01.27	286	신천지 vs 전주기독교연합회
14.05.15	286	금수원, 구원파
15.06.09	286	퀴어축제
14.07.28	282	이석기 석방 탄원서 제출(기독교, 천주교, 조계종, 원불교)
14.01.18	280	신천지 vs 전주기독교연합회
14.05.28	269	목사들 망언(세월호 사건관련)
14.05.20	266	세월호 구원파
14.01.19	265	신천지 vs 전주기독교연합회
14.01.28	265	신천지 vs 전주기독교연합회
14.08.01	265	에볼라 바이러스 지역으로 선교
14.08.13	265	기독교 교황방한 반대 히위
14.07.29	261	이석기 석방 탄원서 제출(기독교, 천주교, 조계종, 원불교)
14.07.08	255	인도사원 땅밟기(인터콥 선교회)
14.08.16	255	교황방한
14.11.25	253	애국 기독교(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 무산됨-11.20 예정)
14.01.21	251	신천지 vs 전주기독교연합회
15.06.08	250	퀴어축제 반대
13.01.09	249	북한 11년 연속 기독교박해 1위 국가/조용기목사 노벨평화상후보 추천
14.03.30	247	기독교 국립국어원에 항의(사랑 의미)
14.07.27	243	이석기 석방 탄원서 제출(기독교, 천주교, 조계종, 원불교)
13.02.14	240	황교안장관후보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

다음 <표12>에는 <표11>에 제시된 트위터 댓글을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네 개 분야로 통합한 분야별 총 트위터 댓글 수와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트위터 댓글이 많이 달린 사건은 사회(6,728건, 41.95%), 정치(6,014건, 37.49%), 종교(3,298건, 20.56%)의 순이었으며, 문화 분야에는 기독교 키워드로 검색된 트위터 댓글은 없었다.

<표12> 분야 및 사건별 기독교 관련 트위터 댓글 수

분야	사건	트윗수		백분율
정치	문창극	3,459	8,162	50.88
	법 개정/철회(차별금지법, 교회세금)	2,148		
	시국(시국선언/시국기도회)	1,217		
	이석기	786		
	세월호, 구원과	552		
종교	신천지 전기연	2,043	3,567	22.24
	교황	1,255		
	목사 망언	269		
사회	퀴어축제	2,506	4,311	26.88
	땅 밟기	551		
	에블라 지역 선교	265		
	기타	989		

####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인식이 인터넷 신문기사와 트위터 댓글을 통해 분석되었다. 최근 3개년 중 인터넷 신문기사의 경우 2014년에 특별히 많은 수의 기독교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트위터 또한 2014년에 기독교관련 댓글이 많이 달렸다. 기사와 트위터 댓글이 가장 많은 날짜들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네 개 분야로 분류하면 기사는 정치, 종교, 문화, 사회 분야 순으로 많았고, 트위터 댓글은 정치, 사회, 종교 분야의 순으로 많았다. 기사가 가장 많았던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었고, 트위터 댓글이 가장 많았던 사건은 문창극 사건이었다. 두 사건 모두 2014년에 발생하여 2014년에 기독교관련 인터넷 기사와 트위터 댓글이 다른 해에 비하여 많았다.

언론사별 전체 기사수 중에서 긍정단어 사용 기사수의 비중은 천지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순으로 높았으며, 부정단어 사용 비중은 오마이뉴스, 서울신문, YTN, 세계일보, 천지일보 순으로 높았다. 긍정기사는 종교계 언론사의 순위가 높았으며, 부정기사는 이단으로 분류되는 언론사의 비중이 정통 기독교 언론사나 일반 언론사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신문 기사가 많은 날짜를 정리한 <표 7>에 의하면 세월호와 관련된 구원과 사건, 문창극 총리후보의 망언, 기독교 연예인의 결혼 또는 장례, 교황내한 반대시위 등이 많았다. 트위터 댓글이 많은 날짜대로 정리한 <표 11>에 의하면 문창극 총리후보의 망언, 퀴어축제, 차별금지법과 교회 세금 등의 법 개정, 신천지와 전주기독교연합회 대립 등이 발생한 일자의 댓글이 아주 많았으며, 인터넷 신문과 달리 세월호사건에는 단어 '기독교'가 함께 언급된 트윗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인터넷 신문은 세월호 사건 발생일에 기독교가 언급된 비중이 아주 높았으나, 트윗글의 경우에는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일본 식민지배 시기에 대한 발언, 동성애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교회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 교황 내한 반대시위, 인도사원 땅밟기 등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이나 책무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일자에 기독교가 언급된 비중이 높았다. 즉, 언론과 대중은 교회 지도자의 부적절한 언행, 교회의 비리, 교회 내 성도간 분열 등과 같은 기독교 조직의 내부사항이나 이벤트보다는 현실 사회, 타문화, 타종교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독교 키워드로 수집된 기사의 긍정단어와 부정단어 사용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정단어 분석에 사용된 감정단어 리스트는 국어사전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트위터 댓글의 경우에는 감정단어 리스트에 수록된 표준어 대신 비속어, 줄임말, 인터넷 용어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감정단어 분석은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세월호, 문창극, 난민, 시국선언 등이 포함된 정치 분야기사와 쿼어축제, 콧교, 성지순례 폭탄테러, 인도사원 땅밟기 등 타종교나 타문화 관련 사회분야 기사에서 부정단어 사용의 비중이 크게 높고, 기독교 자체의 종교행사, 결혼, 장례 등의 기독교 문화 분야기사에서는 긍정단어 사용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은 사건발생의 정부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 문창극 사건은 총리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정치적 대립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정치분야 기사로 분류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사회문제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분야와 사회분야가 공히 부정단어 사용의 비중이 크게 높다는 점에서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도 이 연구에서 도출된 함의나 시사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아(2001: 9)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유교와 불교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 종교와 문화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교회가 타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경규(2008: 7-43)는 신앙과 행위가 불일치하는 이원론적인 모습, 주변에 대한 무관심, 사회참여 부재 등과 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 종교와 문화가 다른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 소극적인 사회참여, 물질을 추구하는 세속성 등을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한국일(2015: 362)은 “한국교회는 외부적으로 도덕적 추락과 이기주의, 공격적 배타적 집단의 이미지로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으로 추락된 한국 기독교의 원인으로 기독교의 내부적인 배타성과 이기성 그리고 물질주의와 지도자의 타락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언론과 대중이 기독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건은 목사의 부정, 교회의 비리, 성도간 싸움과 같은 기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과 대중은 인도사원 땅밟기와, 문창극 총리후보 망언, 한기총 전 부회장 조광작 목사의 발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과 대중은 타 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기독교 사상을 강요하는 이기성과 기독교 외부에 대한 공격적 배타적 태도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원에 있어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함께 구원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타종교인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신경규, 2008: 8).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배타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교회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할 과제이며, 언론과 대중 인식의 긍정적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꼭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승우, 김남규(2014). “오피니언 분류의 감성사전 활용효과에 대한 연구”. 지능정보연구. 20(1). 133-148.
- 박인조, 민경환(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작성과 차원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신경규(2008). “한국교회의 문제와 과제: 장기적 교회성장을 위하여”.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3(3). 1-43.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1993). “정서의 구조: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07-123.
- 윤승용(2015). “연구논문: 한국종교, 30년간의 변화와 종교적 과제”. 『종교문화비평』. 27. 189-227.
- 조경아(2001). “종교간의 대화를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토마스-토마스 그룹의 나눔의 프락시스 방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하나, 정연오, 이재동, 이지형(2013). “인터넷 뉴스 댓글의 감성분석을 통한 오피니언 마이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149-150.
- 한국갤럽(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일(2015). “대형교회의 문제진단과 평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관점에서”. 『선교신학학회』. 39. 359-389.
- 한덕웅, 강혜자(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